

보도시점 2024. 3. 28.(목) 12:00 이후 (금요일 조간) 배포 2024. 3. 27.(수)

녹색기업 맞춤형 성장펀드로 민관협업 녹색투자 모범사례 늘린다

- 환경부, 906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운용사 공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9일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632.5억 원을 출자하여 906억 원 규모 (정부 및 민간 합산)의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라 밝혔다.

올해 정부 출자액 632.5억 원은 지난해 500억 원보다 26.5% 증가한 규모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에 기여하는 환경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로, 2017년부터 10개 펀드 총 3,24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됐으며 현재까지 84개 기업에 약 2,000억 원이 투자됐다.

환경부는 그간 민간 투자사와 소통의 자리를 통해 환경분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새싹기업, 예비 중견기업 등 성장단계별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민간투자사 8개사와 간담회 개최('23.6, '23.11, '24.1)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녹색 새싹기업(청년·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 새싹기업(그린스타트업) 펀드’, △성장 단계의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사업화 펀드’, △예비 거대신생(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확장(스케일업) 펀드’로 나누어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환경분야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투자를 포함했다. 인수합병(M&A)은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는 중요 수단으로, 이번 펀드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유망 녹색기업의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비율을 10%p 이상 상향하여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연차별 투자 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게는 기준수익률을 0.5%p 하향 적용한다.

이번 공고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의 ‘한국 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환경부)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4월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받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외 녹색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녹색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통해 예비 녹색 거대신생(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개요.
2. 2024년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출자·운용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6701)
		담당자	사무관	최진성 (044-201-670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1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개요

- (개요) 정부 출자금과 민간 투자금을 결합하여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투자펀드 조성
 - 결성액의 70% 이상을 미래환경산업을 영위* 하는 주목적 투자기업에 투자해야 함('17~'18 60%, '19~'23 70%)
 - * ①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및
 -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전환에 기여하는 산업(사업공고시 정의)
- (의의)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환경산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강소환경산업체에 투자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
 - * 국내 벤처투자금액 6.6조원('15~'17)의 1.9%만 환경분야에 투자(벤처캐피탈협회)
- (추진현황) '17~'23까지 10개 자펀드 총 3,240억원 조성
 - 환경부 1,878억원을 출자하여 3,240억원의 10개 펀드를 결성하였고, 84개사에 2,001억원 투자(2년이상 투자, 총 5년 이상 존속, 청산펀드 없음)
- 사업 운영체계
 - ① 환경부는 펀드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 계정에 출자
 - ② 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은 출자 받은 모펀드의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
 - 운용사 모집공고 → 1·2차 선정평가 → 최종 선정
 - ③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금(출자자)를 유치하여 자펀드 최종 결성



< 펀드 조성방향 >

◇ **녹색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성장단계별 펀드를 조성하고 M&A 투자 등 대형화를 지원하여 우수 녹색기술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 (조성계획) 906억원 이상 (정부 632.5억원, 민간 273.5억원 이상)

조성규모	정부출자	정부 출자비율	자펀드 수
906억원	632.5억원 (신규 585, 회수 47.5)	70%	5개

○ (조성방안) 창업초기-사업화-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전용 펀드 조성

< `24년 기업 성장단계별 펀드 조성(안) >

분야명	투자대상	자펀드 수	총 조성규모	자펀드당 조성규모	기업당 평균투자액*
그린스타트업	① 창업 3년 이내 ②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2개	86억 원 (정부 60, 민간 26)	43억 원 (정부 30, 민간 13)	약 3억, 26개 기업 (자펀드당 13개)
사업화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 등	2개	400억 원 (정부 280, 민간 120)	200억 원 (정부 140, 민간 60)	약 15억, 24개 기업 (자펀드당 12개)
스케일업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1개	420억 원 (정부 292.5, 민간 127.5)	420억 원 (정부 292.5, 민간 127.5)	약 40억, 9개 기업

* 펀드 조성규모 중 운용비용(보수 등)으로 활용하는 10%는 제외하여 산정

- (①그린스타트업) 녹색 창업초기기업 대상 성장 지원 및 시드 투자를 통해 환경분야 창업 저변확대
- (②사업화) 녹색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녹색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스케일업 단계의 녹색기업 육성
- (③스케일업) 혁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기업당 평균 40억원 이상 투자하여 예비그린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도모

- (투자대상) 유망 녹색산업의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M&A 추진기업 포함 등 주목적 투자대상 확대

※ 그 외, 해외 프로젝트 지원펀드 신설에 따라 해외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복잡한 용어 정리

< '23년 대비 주요 변경내용 >

주요항목	'23년	'24년	변경사유
투자대상	① <u>환경산업 및 미래환경산업</u> 영위 기업	① <u>미래환경산업</u> 영위 기업	용어 정리
	②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개선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삭제	PIS 펀드로 조정
	(신 설)	② <u>M&A 등을 위해 녹색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중소·벤처기업 (단 사업화·스케일업 펀드로 한정)</u>	M&A 지원

- (구성일정) 운용사 모집공고(24.3월), 운용사 선정(~6월), 자펀드 조성(~12월)

- (공고) 운용사 모집공고(3월), 응모한 운용 희망사 대상 사업설명회(4월)

- (선정·조성) 운용사 선정*(~6월), 자펀드 조성(~12월, 운용사)

* 유찰 시 재공고(6월), 자펀드 조성(12월, 운용사)

** 자펀드 조기 조성 위해 운용사 선정 시, 민간투자자 조성금액을 일정 부분 이상으로 확보한 경우 가점 부여

< 자펀드 운용사 선정절차 >

- ◇ (절차) [1차] 서류(정량) [2차] PT + 출자심의회 의결(정성)



- ◇ (가점)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가점 적용

- 출자자 기 확보 / 주목적 투자비율 상향 / 선정분야(성장단계별) 투자 경험 보유 등